



재난 복원력 있는 도시: 지역적 차원에서의 센다이강령을 지원하는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기술

2016 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 킨텍스 컨퍼런스홀 204 호

“도시들은 사회 공정과 경제적 기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시장 및 담당자들의 역량 구축을 위해 우리가 협력하는 중요한 이유이다.”¹

“지난 15 년 동안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의 발전은 빈곤퇴치에서부터 식량안보, 에너지문제, 위생시설 관리, 그리고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다루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²

-UN 사무총장 I 반기문

행사 배경과 소개

도시는 아이디어, 상업, 문화, 과학, 생산성, 사회발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모이는 중심지이다. 도시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의 절반이 기후 변화, 자원의 고갈, 무계획적인 도시화의 중심에 있는 바로 이 도시에 거주하는 지금,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장 원대한 도전이자 기회이다.

오늘날의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기술적 혁신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대한민국 KINTEX 에서 개최되는 국제안전산업박람회는 몇몇 혁신주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기술분야를 알림으로써 특히 도시 분야에 있어 재난위험도 경감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기술분야의 기여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포럼은 대한민국의 지자체들과 기술개발자들이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핵심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시하고, 도시재난 위험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새로운 위험요소의 예방과 경감 및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에 대한 촉진을 목표로 한다.

발전은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2005 년에서 2015 년까지 10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재난 피해가 많았다. 70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1 백 40 만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식처를 잃었다. 전세계적으로 10 억이

¹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remarks at Sustainable City Days, New York, 12 December 2013.

²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remarks at the first multi-stakeholder foru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3 May 2016.

넘는 인구가 재난에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여성, 어린이, 준비가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1 조 미화 달러가 넘는다.³

위험도를 경감시키고 새로운 위험도의 발생을 방지하는 강령

재난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은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 3회 유엔 재난 경감 컨퍼런스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전세계적 재난 경감을 위해 발표했다. 센다이강령은 모든 재난에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목표들을 세웠으며, 지속가능 개발목표 및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과 같은 다른 국제협약과 연관 관계가 있다. 강령은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행동과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우리 시는 준비되었습니다' 위험도 경감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이 글로벌 캠페인은 더 많이 알고, 현명하게 투자하며,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해 이미 3,300 개 이상의 도시들이 참가하였다. 가입한 도시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 가지 필수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일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56 개의 도시와 지자체들이 현재 참여 중이다.

기술의 필요성

혁신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개발목표 17 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이라는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센다이강령은 국가, 지역, 도시, 사기업, 민간 기관과 단체들 간 협력이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술 발전과 기술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날짜

2016년 11월 17일

장소

201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일산 킨텍스 제 1 전시장 204호 회의실(이벤트홀)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킨텍스로 217-60 킨텍스

주최

- 유엔재해경감사무소 동북아시아 사무소와 국제 재해 경감 교육 훈련 연수원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재난학 연구소 (KIDS) (<http://www.kaist.ac.kr>)
- 포항공과대학교 (<http://www.postech.ac.kr/>)

³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United Nations, 2015

- 이클레이 –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역 정부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http://www.iclei.org/>)

참가자

국내 도시 정부 관계자들, “복원력이 강한 도시” 캠페인 참가자들
연구원, 개발자: 사기업, 학계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 제공

포럼 목표와 바라는 성과

목표:

이번 포럼은 도시 재난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피해를 축소하고, 새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 복원력이 강한 도시 캠페인의 좋은 사례와 교훈을 전달한다
- 도시 관계자, 연구원, 개발자들의 네트워킹 자리를 제공하고 정부와 사기업의 이해도와 협력을 높인다

바라는 성과:

- 도시 관계자들이 현존하는 해결 방안들을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난다
- R&D 종사자들은 어떤 위험들이 있으며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알게 된다
- “복원력이 강한 도시” 캠페인을 위해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이 생긴다



With funding support:



재난 복원력 있는 도시: 지역적 차원에서의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재난위험도경감을 위한 기술
2016 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 KINTEX 컨퍼런스룸 - 204 호

2016 년 11 월 17 일	예정된 스케줄
9:30-10:00	등록
10:00 - 10:20	개회식 축하 - 심재현 원장,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개회연설: 왜 재난을 경감하여야 하나? 재난 위험의 트렌드 - 산자야 바티아, UNISDR ONEA-GETI 소장
10-20 - 10:30	기조연설 재난관리기술, 재난위험도, 그리고 재난 연구를 위한 사회적 기술 박희경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재난학 연구소 소장
10-30 - 11:00	도시와 기술에 관한 세션 우리의 도시들은 위험에 놓여 있을까? 회복력 있는 도시 - 김하나, 이클레이 (ICLEI) 한국 사무소 한국의 PS-LTE 진행상황 - 심진홍 단장, 국민안전처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단 질의응답
11.00 - 12.00	기술에 관한 세션 1 재난위험도경감을 위한 스마트 컴퓨팅과 시스템 - 김영석 교수, 포스텍 재난안전융합기술연구소 소장 / 미래 IT 융합연구원 부원장 소셜 네트워킹 분석 -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분석 - 김미정 선임 연구원, 신기영 연구원, POSTECH 재난안전융합기술연구소, 미래 IT 융합연구원 (POSTECH i-Lab) 질의응답
12:00 - 13:00	점심 (컨퍼런스 내)
13.00 - 14.00	기술에 관한 세션 2 DARPA Robotics Challenge 에 대한 기술적 검토: 카이스트 연구팀 - 이정호, Rainbow 사 CEO 질의응답
14.00 - 15.00	기술에 관한 세션 3 효고로부터의 교훈: 홍수 대응 기술 - 야스오 카와와키 박사, EMECS 담당자, 일본 효고현 고베시 질의응답
15:00 - 15:30	폐회식 질의응답: 국내도시들은 어떻게 재난 복원력을 강화하고 있나? 폐회 연설 - UNISDR